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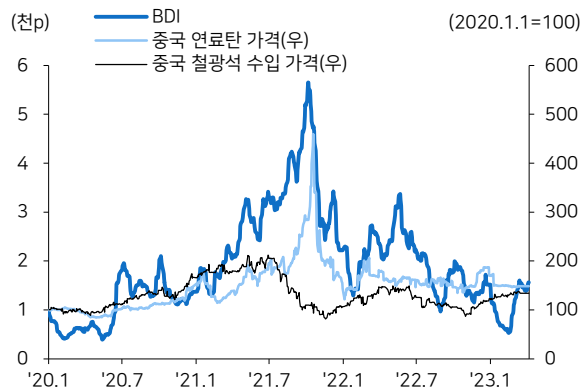
2023. 4. 10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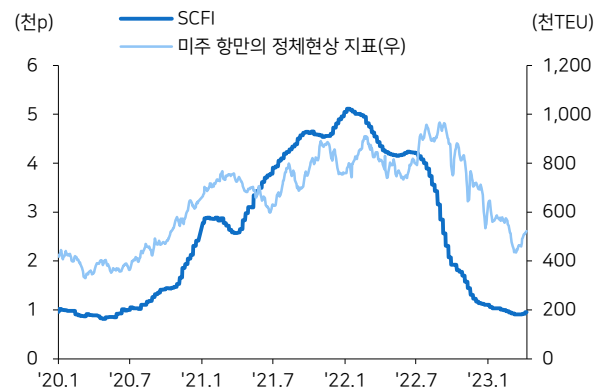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6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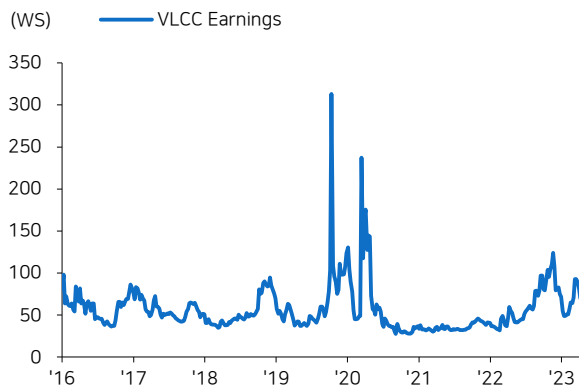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56.9p(+33.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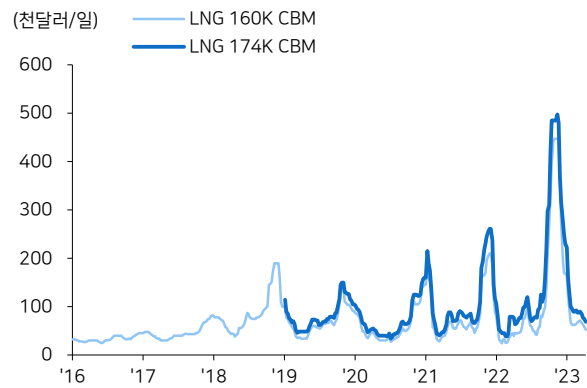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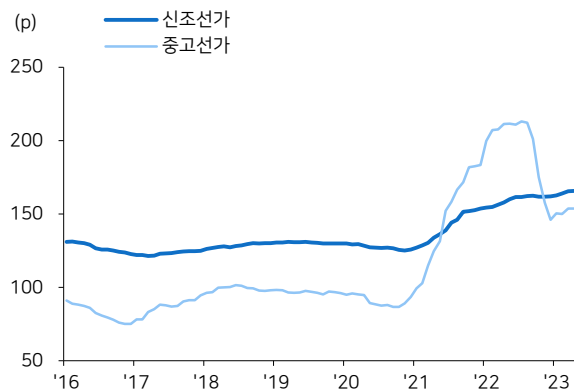
69.8p(-11.7p WoW)



LNG Spot 운임

52.5천달러(-6.0천달러 WoW)
68.8천달러(-6.3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5.5p(+0.0p WoW)
153.5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54.0달러(+1.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tolt-Nielsen, "돈 더 주고 신조선 발주하겠다"

케미컬 탱커선사 Stolt-Nielsen는 지난 2~3년간 15,000DWT급 케미컬 탱커 2척 등 중고선을 활발하게 매입했으나 더 이상 중고선을 매입하지 않을 계획으로 보도됨. 중고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신조선 발주가 낫다고 언급됨. 한편, CEO는 회사 상장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ttps://bit.ly/43g1jzN>)

China's EGPB inks deal for up to eight chemical tanker newbuildings

중국 EGPB Bulk Carrier가 Wuhu Shipyard에 PC선 최대 8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18,500DWT급 IMO II PC선으로 4+4 조건에 발주했다고 언급됨. 브로커들은 척당 3,000만달러 수준에 계약됐고, 2025년 하반기~2026년 1분기에 4척을 인도할 전망이다이라고 언급함. (Tradewinds) (<http://bit.ly/3zFxDyx>)

Analysis: Europe facing costly winter without enough long-term LNG deals

유럽이 러시아산 PNG를 대체할 LNG 장기공급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됨. 중국 수요 회복으로 다음 겨울철에는 높은 가스가격에 시장이 타이틀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2022년 유럽은 전년대비 60% 많은 LNG를 수입했는데, spot 시장에서 구입해 약 3배 비싼 1,900억달러에 매입했다고 언급됨. 유럽의 LNG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1년 약 13% 수준에서 2022년 33%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023년에는 50%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됨. (Reuters) (<http://bit.ly/41d72EF>)

중동-중국 용선료 6만弗선까지 후퇴...3주새 20% ↓

VLCC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고 알려짐. 중동-중국항로 VLCC운임은 79.4WS로, 80WS를 밑돈 건 3월 초 이후 한달 만으로 보도됨. 다만, 손익분기점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언급됨. VLCC시황은 2월 중순 이후 미국 원유 수출 증가와 중국 수요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지만, 미국 동안 지역 원유 출하 감소, 브라질·서아프리카 등 전 해역 수송 계약 부진으로 3월 하순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언급됨.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정유소들이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영향도 있다고 알려짐. (코리아슈핑가제트) (<https://bit.ly/3KlmaEG>)

중동-중국 용선료 6만弗선까지 후퇴...3주새 20% ↓

흑해곡물협정을 연장한 2주뒤 러시아는 약속된 60일 이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됨. 서방이 구축한 방식처럼 육상·철도·운하 등을 이용하라고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언급한 바 있음. 2주가 지났음에도 러시아가 요구한 러시아산 곡물 및 비료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bit.ly/3MuCJFj>)

'Go by land': Moscow casts doubt on Black Sea grain corridor

Container xChange가 공급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가격 감점 지수(xCPSI)를 조사한 결과 3월부터 정세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4월초에는 다음 분기에 대해 조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글로벌 금융 및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재고를 과잉확보한 소매업체들의 재고 보충 시기가 늦춰지며 정기선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다고 알려짐. 그러나 앞으로 몇 달간 소매업체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과잉재고를 소진하기 시작하며 수요가 완만하게 반등할 예정으로 언급됨. (선박뉴스) (<https://bit.ly/3A2li7P>)